

가스비 감당 안돼 '냉골 생활'...한겨울 힘겨운 '생존 전쟁'

코로나에 한파까지...광주 취약계층 혹독한 겨울나기

김명동(77) 할아버지는 오늘도 한 시간을 걸어 삼각산 속으로 가 용변을 봤다. 북극발 한파가 몰아치기 훨씬 전부터 얼어붙은 화장실 배관은 도통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매일 미끄러운 산길을 올라야 하는 처지가 됐다. 코로나와 빙판에 둘러싸여 이불 속에서 버텨왔지만 생리 현상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한다.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 며칠 전, 폭설에 도저히 산길을 가기 무서워 화장실을 열고 팡팡 얼어붙은 변기통 물을 대걸레 막대기로 내리쳤다가 힘만 팔았다.

"없이 사는 게 죄야." 김씨 할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좁은 단칸방에 울렸다. 보일러가 있지만 오래돼 23도 이상으로 올리기라도 하면 여지없이 꺼진다. 방 안에서는 옷풍이 사방에서 불고 바닥에서는 찬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방 안에 걸려놓은 옷가지가 마를 날이 없다. 내복을 입고 이불을 꿰뚫더라도 냉기가 뱃속까지 스며든다는 게 김씨 할아버지 말이다. 온수도 나오지 않아 이불 빨래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김씨 할아버지는 이곳 단칸방에서 만 수년째 겨울을 냈다. 그래도 올해 추위가 가장 지독하다고 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추위를 이겨낼 또래 노인들도 만나기 어렵고 자주 들렀던 사회 복지 공무원들과도 전화로 안부를 나누는 일이 많아졌다.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고 있는 취약계층이 김 할아버지 뿐일까.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광주 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8만 4762명으로

보일러 오래돼 제대로 작동 않고 전기장판도 없이 담요만 겹겹이

한파에 화장실 변기 얼어붙어 사람없는 산으로 가 용변 해결 "유독 추운 겨울 빨리 끝났으면"

차상위계층(3만5910명)까지 포함하면 11만명이 넘는 취약계층이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다.

남구 백운동 단독주택에 사는 6·25 참전용사 최기봉(가명) 할아버지 부부도 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최 할아버지는 올해로 92세. 자신도 힘들지만 뇌졸중을 앓았던 아내, 건강이 좋지 않은 환갑의 아들까지 살피야 한다.

발이는 시원찮은데 찡길 게 많다보니 겨울에도 허리띠를 꼭 조여야 한다. 예전에 가스비가 20만원 넘게 나온 뒤 보일러도 하루에 한 번만 켜다. 최 할아버지가 냉동고 같은 집 안에서 두 세벌의 옷을 챙겨입고 사는 이유다. 말하는 최 할아버지의 입에 선 허연 입김이 나왔다.

최 할아버지는 "가스요금 지원금은 한달에 만원인데, 감당할 수 없어 저버 때 잠깐 켜다"고 말했다. 몸이 좋지 않은 할머니는 하루종일 전기장판에 누워 생활한다. 할머니는 얼마 전 잠시 나갔다가 병



광주시 북구 오치동 김명동 할아버지가 홀로 살고 있는 단칸방(위)은 비좁고 추웠고, 남구 백운동 최모 할아버지의 집 마당 수도가는 영하권을 밀도는 강추위에 얼어붙었다. /정병호·김민석 기자



판길에 넘어져 다리까지 다쳤다. 최 할아버지는 "전기장판 없으면 얼어죽는데 오래돼서 그런지 온도를 가장 높여도 미지근하다"고 했다.

가난은 불편도 가져온다.

북극발 강추위로 광주지역 곳곳에 동파 신고가 쏟아지던 날, 최 할아버지 집 화장실도 얼어붙었다. 그나마 주방 싱크대 물이 조금씩 나온 게 다행이었다. 90대 최 할아버지는 그 물을 끓여 화장실

을 녹였다.

최 할아버지는 "이번 겨울은 유독 춥고 긴 것 같다. 빨리 겨울이 끝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구 농성동에 홀로 사는 김영균(가명·81)씨도 지난 주말, 추위에 밤을 썼다.

연립주택 밖에 설치된 보일러에 문제가 생기면서다. 추위 때문에 집안에서도 털모자를 벗지 않고 지낸다. 김씨는 최근 일주일만 집 밖을 나서지 않았

다. 동사무소에서 매주 배달해주는 일주일치 식사로 끼니를 해결해왔다. 김씨는 "공공근로도 하고 복지관에서 친구들도 만났는데 코로나로 모든 게 멈췄다"고 말했다. 추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아프고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무안군 공직기강 해이 '해도 너무하네'

낯술 회식에 혈세로 받은 방한용품 중고사이트 판매까지 시도

무안군 공직기강이 무너져 내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군수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대놓고 무시하는 '낯술 회식'으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지급받은 방한용품까지 팔려다 적발되면서다.

12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세금으로 지급된 패딩점퍼와 안전화 등 방한용품을 인터넷 중고 매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던 소속 환경미화원 4명을 적발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중고 인터넷 마켓에 올라온 안전화와 패딩재킷 등에 대한 하자 여부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 운전직으로 해당 물품을 지자체로부터 동계물품으로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무안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민원인은 "이미 여러 환경 미화원 및 운전직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무안군은 진상 파악에 나서 이들 환경미화원들이

지난해 지급한 방한복과 안전화를 판매하려던 사실을 확인했다. 무안군은 당시 2700만원을 들여 이들을 위한 방한복·안전화를 구매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무안군은 제설제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설차 운전자에게 '제설 시능'이라도 하라는 지시를 내려 물의를 빚었다.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군수조차 대낮에 낯술 회식을 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공직 기강이 제대로 서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2일 공무원 등 12명과 함께 청계면 산란계 농장을 방문했다가 음식점에서 대낮에 반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사실이 밝혀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는 정부가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무안군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지급한 방한용품을 판매하려 했다는 사실에 당혹스럽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산재 사망사고' 평동·여수산단 업체 안전조치 위반 확인...작업중지 명령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광주일보 1월 12일 6면)와 관련, 경찰과 노동당국이 사업장 내 안전 조치 위반 현황을 다수 확인했다.

1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노동청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폐플라스틱 공장과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공장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노동청은 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벌여 광산구 폐플라스틱 공장의 경우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는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파악했다. 광산경찰은 애초 사고 현장에 2명의 노동자가 머물렀던 점을 들어 '2인 1조'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조사했지만 이들이 5m가량 떨어져 각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여수산단 산재사고 현장에서도 기계 점검에 앞서 전력을 모두 끊고 관련 장비에 들어가지 않았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민원인에 반말·인격 비하 발언하고 상관 지시도 거부한 경찰

징계 불복 항소 냈지만 법원 '이유 없다' 기각

경찰관이 112 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반말을 하고 인격 비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보고하라는 상관의 지시도 거부해 징계까지 받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1부는 A경위가 강진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경위는 지난 2019년 5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전날 밤 모르는 차량이 집에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내용을 들은 뒤 반말로 '왜 지금 신고했어, 어제 신고하지'라고 하는가 하면, '누군가 집에 와서 두리번거리는 것을 봤다'는 신고자 말을 듣고 '이런 사건은 신고하지 말고, 알아서 마을에서 처리하라. 법 공부나 더 하라'는 등 인격 비하 발언을 한 점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 A 경위는 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발생 보고를 하세

요'라는 상관의 지시에도 '아니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제 판단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거부, 국가공무원법(57조)에 따른 복종 의무 위반 사유로도 징계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원 내용, A 경위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 진술, 현장 촬영 동영상 등을 토대로 'A 경위가 징계받게 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징계 사유는 민원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증거가 없다'는 A 경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도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 경위에 대한 징계로 얻는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 경위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동구 대인동, 싹 땀
 (주)신세계오피스텔 H. 010-3605-5000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 중심상업지역, 대지 515㎡(구, 156평)
- ▶ 지하 1층, 지상 9층, 64호실, 49㎡(14평) 오피스텔 허가 有
- ▶ 지하 1층 공사 中, PF 28억 확정
- ▶ 매매 - 토지 17억, 지하 공사비 3억, 총 20억
- ▶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조정 가능)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